

제13회 이사회 의사록

2007. 11. 16(금) 11:30

한 국 관 광 공 사

2007년도 제 13회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07. 11. 16(금) 11:30

2. 장 소 : 16층 회의실

3. 안 건 : 총 2건

(심의안건)

◎ 정관 개정(안) : 원안의결

(보고안건)

◎ APTIC & EXPO 2007 개최 결과 보고 : 원안접수

4. 재적 이사 : 9명

5. 출석 이사 : 8명

6. 참 석 자

의 장 오 지 철	이 사 김 지 상
이 사 강 광 호	이 사 신 진 기
이 사 최 갑 열	이 사 도 영 심
	이 사 정 의 선
	이 사 김 향 숙

7. 의 사 록 : 붙임

의 장 : 지금부터 이사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2007년도 제13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먼저 지난 제12회 이사회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제12회 이사회 결과 보고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이사들 이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이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이며, 이중 심의안건은 정관 개정(안) 1건이고, 보고안건은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 1건입니다.

의 장 : 그럼 먼저 정관 개정(안)에 대해 기획조정팀장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제안 설명하다)

의 장 :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정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이 안건이 2005년도에 이사회에 상정 되었을 때 저는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제안 사유는 한국관광 브랜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의 영문 명칭인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이 National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음으로 인해 너무 Nationalistic한 즉, 정부 주도적인 성향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사 영문 명칭에서 National이라는 단어를 빼겠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제가 그 당시 영문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를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40년 동안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을 사용해 오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이미 그 명칭이 쌓아온 인지도를 고려해서라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인 공사의 본질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명칭만을 바꾼다고 해도 어떠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명칭이 다소 길어 편의적인 측면에서 짧게 바꾸었다면 저도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구미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사 명칭에 National이 들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부기구로서의 후광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명칭이 공사의 업무활동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아닌 이상 그냥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적으로 지명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질문 중에는 “Pusan 에서 Busan까지” 또는 “Cheju에서 Jeju까지” 이동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는 웃지 못 할 사례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안건을 다시 이사회에 상정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어떤 명칭을 사용

하는 경우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속성을 가지고 해주길 바랍니다. 지속성이 이루어져야 전통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상 이사 : 도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건은 재 상정 된 안건이고 나름대로 공사 영문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바꾸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도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외국어 명칭을 바꾸게 되면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텐데 그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조정팀장 : Korea Tourism Organization은 2005년 8월 공사 CI 변경 시부터 계속 사용하면서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김지상 이사 : 아 그렇습니까? 저는 온라인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존의 매체는 이미 변경되어 있는 것입니까?

E-투어리즘본부장 :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경기관광공사가 KTO를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경기도의 영문 명칭이 Kyeonggi에서 Gyeonggi로 바뀌면서 GTO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경기관광공사에 온라인상의 주소도 GTO를 사용하고 대신 KTO를 우리 공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일단 양해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지상 이사 : 예,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한 문제들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공고 방법을 특정매체에서 불특정매체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이어야 합니까?

의 장 : 예, 그렇습니다. 전국지인 일간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기획조정팀장 : 참고로 법무팀 자문결과 통상 기업의 소재지에서 발행
하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신진기 이사 : 예, 잘 알겠습니다.

신진기 이사 : 저는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KTO로 바꿀 경우 이와 관련해서 실용신안 특허 등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 명칭의
변경 내역을 보니까 처음에는 국제관광공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국관광공사로 바뀐 것은 언제였습니까?

기획조정팀장 : 한국관광공사로 바뀐 것은 1982년이었습니다.

신진기 이사 : 공사 영문명칭 변경 내역을 보니 그 이전인 75년부터
명칭에 National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기에 저도 앞서
말씀하신 도이사님이나 김이사님과 같은 의견이라는
뜻으로 재확인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사가 그동안
KNTO로 특허청에 등록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 KTO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이사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정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결과에 대해 관광투자유치센터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투자유치센터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보고 드린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컨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행사에 대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관광투자유치센터장 : 약 10억5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행사 운영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그날 행사에 참석해서 보니까 헤드테이블 옆에 행사 도우미들이 앉아 있더군요. 물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우선 당장 그 분들을 앉게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러한 모습은 행사의 품격에도 관계를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초반에 자리를 떠나실 분들은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행사에도 다수의 외교 사절들이 초청 되었더군요.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은 초청된 외교사절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나마 통역 서비스라도 제대로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 행사에 가보면 가장 기본적인 통역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외교 사절들을 초청했으면 그에 맞는 배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주한 외교사절들이 와서 “나를 여기에 왜 초청했나?”하는 생각은 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행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외교통상부 행사 이외의 다른 많은 행사들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이었습니다.

신진기 이사 : 저도 그날 행사 시작 30분쯤 전부터 참가 부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규모도 매우 커지고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행사인 만큼 도이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념 하셔서 이 행사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상 이사 : 그리고 참가 인원이 3천9백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투자유치센터장 : 해외 초청인원은 70명이고 그중 연사는 26명, 나머지는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가한 외국인은 50명이었습니다.

김향숙 이사 : 자발적으로 참가한 50명은 주로 어느 나라 분들이었습니까?

관광투자유치센터장 : 출신국가는 지금 통계작업중입니다만, 주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김지상 이사 : 결과적으로 행사는 잘 치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도이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행사관련 집행예산이 10억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담당자가 보기에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강광호 이사 : 공사가 박람회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KOTRA의 경우는 Invest Korea에 약 7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나온게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사는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KOREA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항상 격려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곧 어느 정도는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상 이사 : 초기에 집중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둔다는 말씀이시군요.

강광호 이사 : 보통 투자유치는 5년~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 장 : (각 이사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이사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은 공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 심의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3회 이사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타봉)

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 제 2항에 의거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

2007. 11. 16.

의 장 오 지 철

이 사 김 지 상

이 사 강 광 호

이 사 신 진 기

이 사 최 갑 열

이 사 도 영 심

이 사 정 의 선

이 사 김 향 숙